

“누가 살아 남나”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 초긴장

3자 단일화 지켜본 후 컷오프 발표...“3명 vs 4명”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 7인. 맨 왼쪽 맨 왼쪽부터 강기정, 민형배, 양항자, 둘째 줄 맨 왼쪽부터 윤장현, 이병훈, 이용섭 예비후보, 셋째 줄은 최영호 예비후보. 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컷오프 명단을 속속 발표하면서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도 생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피말리는 긴장감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3일 6·1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자체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단수 공천 5곳, 2인 경선 4곳, 3인 경선 6곳이다.

앞서 민주당은 2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민중일치로 결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선 과정과 내홍, 짧은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결선투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대표성 확보와 사표(死票) 방지 등을 추구한 예비후보들의 의견을 존중해 컷오프에 이른 본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경선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특히,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7과전 속에 결선투표제가 3~4명이 본경선을 치를 경우 30% 인파의 지지율로 선출될 수 있고 이는 곧바로 대표성 논란을 낳을 수 있는데 결선투표제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무더기 사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선투표 도입으로 사실상 2인 경선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고 3

인 또는 4인이 생존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지를 선두와 3자 단일후보, 현직 시장, 여성 후보가 상징성과 가산점 등에 힘 입어 컷오프를 통과하지 않겠느냐 분석이 적지 않다. 다른 광역단체에서 컷오프 통과자가 3명인 경우가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3과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당국이 “신중하고 민감한 사안”으로 보고 3개월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친·인척 또는 측근 비리, 정세성과 당 기여도 등이 변수로 작용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요로요로를 통해 생존 가능성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한편 결선투표가 미칠 유·불리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예비후보 진영은 “가장 배점이 높은 당선가능성에서 돌보여 컷오프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3인이든 4인 경선이면 좋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3자 단일화에 합의한 한 후보는 “정체성과 당 기여도, 경품과 비전 측면에서 차별화가 확실해 단일 후보로 선출될 경우 표 결집으로 경선 승리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후보 측은 “경선 진출에 대비해 탈락 후보 진영과의 정책적 연대, 표 흡수 등 다각적인 ‘포스트 컷오프’ 전략을 짜고 있다”면서도 “누가 살아 남을 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어 순간순간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뉴스스

“민주당 나와라” 평화당 전남기초장 4곳 선제 공천

박지원, 전남지사 출마시 ‘돌풍’도 예견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고공행진인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일부 기초단체장 공천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6·13 지방선거에 돌입했다.

3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남 박홍률 목포시장 후보를 비롯해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임호경 화순군수 후보, 이윤행 함평군수 후보를 각각 공천자로 확정했다.

아직 출마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나올 수 있다면 이들과 함께 ‘평화당 돌풍’도 예견된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전남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해남군수 선거에는 평화당 명현관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천장을 들고 표발을 누비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석원 전 전남도의원과 윤재갑 민주당 농수축산사업특별위원, 이길은 해남군의원, 김왕근 전 농림축산식품부 부이사관, 김봉욱 전 광주대 교수 등이 출

사표를 던지고 당내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해 뛰고 있다.

명 전 전장과 민주당 후보가 누가 겨루게 될지 벌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 여기 평화당 소속 박홍률 현 시장과 민주당 후보간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재선을 노리고 수성에 나선 박시장에 맞서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종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최기동 목포시의원, 조요한 목포시의원, 김대준 목포발전연구원 고문, 배용태 전 전남도행정부지사 등이 치열한 경선을 예고하고 있다.

화순군수 선거는 평화당 후보로 임호경 전 군수로 확정되면서 전·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구충곤 현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임 전 군수간 4년만에 리턴매치가 성사되는 것이다.

3선에 도전하는 안병호 현 군수

가 ‘미투’ 의혹이 불거져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함평군수 선거도 함평군의회의 의장을 지낸 이윤행씨가 평화당 공천자로 확정되면서 민주당 상대가 누가 될 것인가가 관심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4선 농협 조합장을 지낸 윤환수 전 내골농협 조합장과 박래욱 전 전남도의원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당 조직과 3선 출마를 포기한 안 군수의 민주당 조직간 격돌이 불ми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 출마할 수 있다면 ‘평화당 돌풍’도 예견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은 이날 출마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아직 여지가 있다는 뜻을 이어갔다.

전남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평화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해 적극적인 표발작전에 나선다는 전략이다”면서 “박지원 의원이 전남지사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정치환경만 조성돼 출마한다면 이들과 함께 ‘평화당 돌풍’도 예견된다”고 말했다.

뉴스스



목넘히는 당 대표들 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당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및 참석자들이 목넘을 하고 있다.

전남서도 ‘원팀 운동’ 확산되나...장만채 ‘원팀경선’ 제안

부산, 울산, 제주 등에 이어 전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원팀(One Team) 경선 운동이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예비후보의 제안에 대해 다른 예비후보가 동참할 지 주목된다.

장 예비후보는 3일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그 어느 지역 보다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한다며 김영록 후보와 신정훈 후보의 동참을

제안했다.

장만채 후보 대변인실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남도지사 경선에 나선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오로지 전남 도민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전남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도민 앞에 제시해 평가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 후보 경선은 바로 이런 비전과 정책을 누가 제대로 실현

할 수 있는 책임자인가를 가리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후보 모두가 민주당 당원이 되고 누가 승리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설 도민들의 선택을 받는 만큼 전남도지사 후보경선은 말 그대로 원팀 경선, 아름다운 경선이 돼야 한다”며 “이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지지하는 전남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이자 민주당의 6.13지방선거 압승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뉴스스

안철수, 오늘 서울시장 출마선언

박원순과 2분거리에 사무실 할 예정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의회에서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3일 안 위원장 측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

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 측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경우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겠다고 공언해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서 출마선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출마선언문에 미세먼지 대책을 비롯한 민생 공약과 자신이 표방한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

부’에 대한 청사진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안 위원장은 최근 종로구 안국역 인근의 한 빌딩에 4개 층 규모로 캠프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빌딩은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인 박원순 현 시장 캠프와 거리가 도보로 2분여에 불과하며, 사거리를 끼고 두 빌딩이 마주보고 있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2018년 후보직 양보로 한 배를 탔던 안 위원장과 박 시장의 ‘빅매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